



우수콘텐츠잡지
2023

월간 미술

460

월간미술

2023 05

홍콩 오디세이 - 아시아 미술시장의 성장과 확산

460

9 771227 312009
ISSN 1227-3120
5
권 15,000원

May 2023
since 1976

SPECIAL FEATURE

홍콩 오디세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성장과 확산

아트바젤 홍콩이 재개했다.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와 함께, 매년 3월에 열리며 흥행을 담보하는 까닭에 관계자들 사이에서 '봄의 전령사'라고 인식되던 아트바젤 홍콩은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타격을 제대로 받아 지난 3년 동안 이렇다 할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라도 홍콩은 그간 안팎으로 시끄러웠다.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홍콩의 공권력과 젊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이어 홍콩의 글로벌 기업이 철수를 고려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아트바젤이 홍콩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나돌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3월 아트바젤 홍콩의 뚜껑이 열리자 홍콩의 아트씬은 3년 전 수준으로,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기량을 보여주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유럽과 미국의 아트페어 방문자 수는 줄었으나 이 공백을 아시아 지역의 '큰손'들이 채우며 거침없는 구매력을 입증했다. 때에 맞춰 갤러리는 독자적인 갤러리 공간에서 주요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미술기관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전시와 프로젝트를 경쟁적으로 내세웠다. 홍콩 미술의 지형도는 물리적으로도 확장되었는데, 홍콩정부는 서구문화지구(M+)를, 센트럴 지역에 타이관을 유치해 개관시켜 놓고 남쪽으로 내려와 원적항을 또 다른 예술지구로 개발 중이다.

홍콩의 성공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싱가포르 서울 도쿄로 이어지는 미술 거점의 여정에 올해는 더 폭발적인 이목이 쏠릴 것임이 분명하다. 월간미술은 선두에 선 홍콩의 미술시장과 미술기관이 그동안 고유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지역의 예술정책과 민간의 후원문화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며, 작년에 '프리즈 효과'를 톡톡히 본 한국의 미술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본다.

홍콩=심지연 편집장 김소정 기자

ODYSSEY





홍콩 M+ 사진: Virgile Simon Bertrand 제공: Herzog & de Meuron

전문가 리뷰

홍콩 아트위크의 변화와 한국 미술시장의 과제

2023년 홍콩 아트위크를 방문한 4인의 미술시장 전문가에게 ▶홍콩 아트위크 전반의 리뷰, ▶팬데믹 이후의 변화
▶홍콩 아트마켓의 장점과 아시아 아트마켓의 전망 ▶한국 미술시장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정리=심지연 편집장

김윤섭 아이프미술경영연구소 대표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는 홍콩이란 불문율은 깨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여러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거점도시’가 생성되지 않을까 싶다.”

아트비젤 홍콩은 예전과 다소 달라진 분위기였는데, 참여 화랑의 70%가 아시아권이고, 서구권 화랑들의 참여도와 비중이 크게 줄었다. 특히 한국의 미술계 및 미술애호가들이 대거 방문해 그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다. 그나마 위안 삼은 만한 요소는 한국의 작고 및 중진 작가들의 선전이 눈길을 끌었다는 점이다. 아트센터럴은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했다. 올해는 아트비젤 홍콩이 열리는 곳과 연결된 같은 건물에서 진행되어 반사이익을 봤다고 할 수 있겠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해 신규 고객층들이 부담없이 구매에 나서기에 수월했다. 그 외에도 수준 높은 특별전이 많았다. H퀵스의 갤러리 전시, M+의 쿠사마 야요이 개인전 등은 홍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여기에 M+ 맞은 편에 새롭게 확장 이전한 필립스의 프리뷰 역시 화룡점정이었다.

적어도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는 홍콩’이란 불문율은 깨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금융도시, 경제 자유도시라는 이점을 배경으로 아시아 미술시장의 플랫폼 역할은 이어가겠지만, 힘은 분산되어 아시아 여러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거점도시’가 생성되지 않을까 싶다. 중국 본토의 상하이, 자카르타, 타이베이, 서울과 부산, 인도와 일본 등 여러 국가 고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미술시장의 생성이 기대된다. 한국은 프리즈 서울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감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선보이며 확산해 온 프리즈 특유의 시스템은 수용하되, 그 창구로 한국 현대미술의 특징점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술생태계 전반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 프리즈가 서울을 소비시장으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파트너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프리즈가 서울을 기반으로 한 현지화의 노력에 나서서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권민주 프리즈 아시아 VIP & 사업개발 총괄이사



“현시점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국미술, 한국문화, 한국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더 훌륭하게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만에 방문한 홍콩은 당연히 아시아 마켓의 허브였다.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미술관뿐만 아니라 홍콩 전체가 콘텐츠를 대방출한 기간이었다. 홍콩이 그동안 마켓에 오롯이 집중했다면, 팬데믹 이후 아트신의 구조가 달라진 것 같다. 비영리 기관이나 미술관 등의 등장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M+의 개관이 시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크고 작은 기관 등에서 로컬/신진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활발해진 것 같다. 홍콩 아트마켓의 강점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의 허브이며, 미술 작품 구매에도 구조적으로 유리하며, 언어의 장벽이 없는 몇 안 되는 아시아 도시이다. 하여 국제적으로 미술 교류가 일어나기에 더없이 좋은 위치이다. 또한 아시아의 가장 큰 미술 소비국가인 중국이 이번을 기점으로 다시 움직인다면 아시아 아트마켓 허브로서의 홍콩은 늘 전망이 좋을 것 같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 미술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프리즈가 서울로 들어오면서 전 세계 아트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시점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한국미술, 한국문화, 한국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더 훌륭하게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콘텐츠가 매력적이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서울로 인한 홍콩의 위기, 또는 올해 홍콩의 성공으로 인해 서울이 위태롭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상반기에는 홍콩, 하반기에는 서울의 시장을 움직여 범아시아적 미술시장에 시너지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유럽, 미국에는 전 세계 메이저 아트페어며 축제가 많이 있다(런던, 바젤, 파리, 뉴욕, LA 등). 왜 아시아에는 허브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가? 아시아도 더 많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이장욱 스페이스K 수석 큐레이터



“앞으로 아시아 아트마켓은 홍콩과 서울 두 곳으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여전히 강했다. 이제 막 문을 연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전에 참여했던 메이저 화랑들의 참여가 줄었고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마스터피스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중국 컬렉터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컬렉터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대단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NFT 아트 작가와 기획자 등도 많이 보였으며, 아트바젤 홍콩 마지막 날엔 일반 관람객들로 부스 내 이동조차 쉽지 않을 만큼 현지인들의 관심 역시 대단했다. M+와 홍콩미술관, 파라사이트, K11, 타이관 등의 전시 공간 역시 다양한 준비를 했다. 홍콩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앞으로 아시아 아트마켓은 홍콩과 서울 두 곳으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접근과 소통이 자유롭다. 정치적인 이슈와 작품에 대한 사전검열 문제 등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 미술시장의 매력은 슈퍼 컬렉터의 자금력보다는 신진작가와 저평가된 중견작가를 구매하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컬렉터들의 적극성에 있다. 컬렉터나 애호가가가 자신이 좋아하거나 소장한 작가를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하는 작품의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는 곳, 그것이 해외 갤러리들의 한국 진출에 매력을 더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술시장이 가지지 못한 많은 미술대학과 미술관이 있다. 해외 관계자들이 국내 갤러리나 작가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작가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영어 표기 등)를 위한 아카이브 지원책과 스튜디오 방문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트바젤 홍콩이 끝난 뒤 소더비 홍콩에서 《제어란 개인전》(3.29~4.12)을 큐레이팅 했다. 아트페어 기간이 지났음에도 열기가 여전했다. 제어란 작가의 작품은 홍콩과 중국, 대만, 일본 및 유럽 컬렉터들과 기관에 소장되었고 소더비 측에서도 기대 이상의 반응에 놀랐다. 아트위크 동안 본인에게 소속 작가를 소개하는 갤러리스트도 많았지만, 함께 일할 한국 작가를 소개해달라는 갤러리 설립자들과 갤러리스트 역시 많았다.

김나형 디스위켄드룸 대표



“젊은 작가들과 갤러리들을 지지하는 개인과 기관의 후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홍콩 내 갤러리 연합은 아시아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과 행동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페어에 참가한 아시아 갤러리 관계자들의 서울 아트신에 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했다.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유연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의 아트신, 특정 작가에 대한 호기심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디스위켄드룸과 같이 젊은 지역 작가들을 조명하는 신생 갤러리들의 적극적인 교류 의지가 인상적이었다. 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인상적인 도시 경관을 연출한 M+를 비롯해 홍콩에 아시아 본진을 튼 글로벌 옥션 하우스, 글로벌 갤러리와 지역 갤러리, 비영리 예술공간과 소평물에 이르기까지, 아트 피플을 맞이하는 개인과 기관의 제스처는 규모에 맞게 다채로웠고, 환영하는 인상을 건넸다. 페어 기간 중 홍콩 전역을 부지런히 다녀야 했는데, 지역 개발의 흐름에 따른 새로운 아트신의 출현이 곳곳에서 미세하게 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홍콩을 재방문하고픈 욕구를 자극한다. 아시아에 기반을 둔 미술작가와 갤러리들의 약진, 그리고 홍콩을 방문한 젊은 아시아 컬렉터의 급증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다. 오랫동안 아시아 미술시장의 허브 역할을 주도하며 글로벌 태도와 문화 인프라를 갖춘 저력은 여전하다. 글로벌 옥션 하우스의 본사가 한층 강화된 위용을 드러냈고, 젊은 작가들과 갤러리들을 지지하는 개인과 기관의 후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홍콩 내 갤러리 연합은 아시아 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실천적인 전략과 행동을 끊임없이 모색했다. 서울이 국제적인 미술시장으로 주목받기 위해서는, 한국만이 가진 장점과 특징을 활용해나가는 장 단기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미술시장 안팎의 문화, 관광, 비즈니스 인프라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동될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하고, 작가와 갤러리, 협회, 기관, 컬렉터, 옥션 등 국내 미술시장을 구성하는 개인 및 기관은 각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